

오륙도 칼럼

지난 6월 27일, 부경대학교 실습선 가야호가 용호대첩부두를 떠나 먼 바다로 향했다. 중국 칭다오, 일본 하코다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 총 2621마일(4,218km)을 항해한 끝에 7월 26일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꼬박 30일이 걸렸다. 지금도 뱃고동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필자를 포함한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과와 기계시스템공학과 3학년 학생 99명과 승무원 등 모두 133명이 '한 배'를 뒀다. 승선실습 동안 아침 6시에 기상해 넓은 선미 갑판에 모여 아침제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9시부터 파도에 흔들리는 실습선 강의실에서 선상 수업을 들었다. 어로 실습이 있는 날에는 트롤실습선인 가야호가 그들로 저층 또는 중층의 해저를 끌어 어군을 잡아 올리는 것을 견학했다. 때로는 비를 맞으며 그물에 올라 온 물고기들을 목장갑을 끼고 분류 작업을 했다. 어획량이 많으면 작업은 길고 고되지만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보고 만질 수 있었다. 레이더 조작법도 배웠는데 선위(해상에서의 배 위치)를 측정하는 등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직접 해볼 수 있었다. 활자가 머물던 해양 직식이 펼쳐지려며 생명력을 얻는 것 같았다.

항해 내내 학생들은 조를 짜 브릿지에서

■ 부경대 원양실습선 가야호에서 보낸 30일

4,218km 대항해 끝에 예비 ‘마도로스’ 첫발

하루 4시간씩 당직을 서야 했다. 선박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견시하고 레이더를 보며 경계해야 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꽤 힘들고 고된 일이다. 먼 바다를 항해하면서 말로만 들던 ‘망망대해’라는 것을 실감했다. 몇 시간을 항해하는 동안 아득한 수평선 외엔 배 주위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인공의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칙흑의 어둠, 달빛 밖에 없는 진공 같은 밤 바다에서 옆에 있는 동료들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기분을 전우에 혹은 동료에라고 부를 것이다.

1957년 이후 60년간 이어져 온 전통

잔잔한 바다를 보며 선장님과 항해사님들은 예전 선배들에 비해 우리가 엄청 운이 좋다는 말을 거듭거들 했다. 사실 부경대 원양실습은 국내 원양어업 역사와 같이 한다. 1957년 선배들이 103t 짜리 목선 흥양호를 타고 대만 기룡항까지 항해한 것이 원양 실습의 시작이었다. 목선을 타고 715마일(1150km)을 건넜다고 생각하니 아찔하

다. 이후 원양실습의 전통은 한해도 빠지지 않고 60년동안 면면이 이어져 왔고 그 주인공들이 우리들인 셈이다. 그동안 실습선은 13번이나 바뀌었다.

지식이 생명력을 얻고 펼쳐여

원양실습 동안 주변 3개국을 구경했다. 원양 실습의 꽃이자 낭만이다. 각 기항지까지는 5일 정도 항해하고 나흘 정도 정박했다. 입항해 있는 동안에 하루는 단체견학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견학으로 망중한의 여유를 즐겼다.

첫 기항지인 중국 칭다오로 입항하면서 정박을 입고 정해진 위치에 서서 도열을 했다. 눈 보다 앞서 피부로 느낀 중국은 공기가 뜨겁고 후텁지근했다. 첫 기항지인 만큼 기대를 가진 단체견학에는 박물관이나 역사적인 거리, 광장 등을 가고,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입지와 해양관련 정보의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또 자유견학을 통해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와의 차이도 느

끼고 중국만의 문화나 관점을 경험하고 배웠다.

타국 정박 원양실습의 꽃이자 낭만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도중 잠시 목도를 들렀다. 가야호는 목도와 일정 거리를 두고 두 바퀴를 선회해 홋카이도로 향했다. 목도에서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니 절로 애국심이 솟구쳤다. 두 번째 기항지 하코다테는 기후가 선선했다. 하코다테는 세계 3대 전망으로 유명해 전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고 한다. 단체견학 때 부경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홋카이도대학을 방문해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수산, 해양에 관해 접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중국과는 다른 일본만의 문화도 경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의 경험은 꿈만 같았다. 러시아를 언제 가볼 수 있을까 싶어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기대했던 만큼 풍경, 날씨, 건물, 사람들 등 같은 아시아이면서도 전혀 다른 양식과 문화를 보고 느꼈다.

승선실습 동안 한 배 안에서 100여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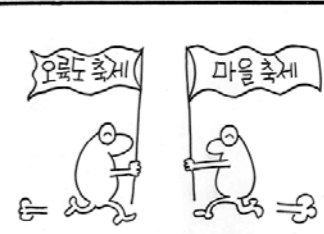
사람들과 함께 한 공동 생활과 장기간 항해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인 적응능력을 키웠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선박운항법을 배우며 실무지식을 익혔다. 장기간 항해하는 동안 배 옆을 지나가는 돌고래 떼와 군함, 어선, 상선 등 다양한 배들을 보는 등 배 위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혜미
(부경대 해양생산
시스템관리학부 3학년)

신선대

<247>



■ 임찬 4의 인생을 바꾸는 말말말 <5> 쉽게 친해지는 화법

‘친화력의 달인’ 만든 팔할은 실수담

예전에 알미웠던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숙제 안 해 갔을 때 “선생님 숙제 내주셨는데요!”라는 친구, 쉬는 시간 중 질 때 “선생님 질문 있어요!”라며 손을 드는 친구 등. 당시에는 알미웠지만 돌아켜 보면 그리고 보고 싶은 친구들이다. 요즘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1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별 때일수록 마음 놓고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다정한 친구가 주위에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운 마음을 담아 주변 사람들과 쉽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화법이 있다면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친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랜 시간에 걸쳐 자주 만나면 친한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협담을 같이 하면서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친밀감으로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를 쉽게 사귀는 방법 중 으뜸은 ‘과거 자신의 실수 경험담을 먼저 이야기 하는 화법’이다.

“예전에 부끄럽게도 제가...” 혹은 “이 이야기는 제 친한 친구들만 아는 이야기인데...”로 시작해 친한 친구들만 알 수 있는 실수담을 꺼낸다면 이는 당신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된다. 예전 인기있던 TV 프로그램 중 ‘무릎팍도사’나 ‘힐링캠프’ 같은 프로그램도 멋진 스타들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주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을 떠올리면 된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공보다는 실수담에 대해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지로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빨리 친구가 된다. 해서 도움을 주면서 부탁을 들어줄 때도 좋은 화법이 있다. “도와주면 너는 뭐해 줄 건데?”보다는 “너도 다음에 내 부탁 들어 줘야 돼” 라거나 혹은 부탁을 바로 들어주는 것 보다 거절하는 뉘앙스를 풍기다가 “너라서 들어 주는 거야”라며 내가 당신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나타낸다면 상대방은 고마움을 끝없이 느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구는 어떤 일이든 상대방이 되어 상담할 때에도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충고하지 말고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결정은 네가 해”라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결과 중심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감을 주게 된다. 이렇게만 실천해 본다면 주변에 친구가 넘쳐날 것이다.



임찬수식스피치학원 원장

산타라라 물 따라라

산행을 떠나요

<2016. 9.>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연포산악회	9/25(일)	진안 마이산	010-3832-5971
	한울림산악회	9/11(일)	괴산 대마산	010-9328-6091
	약천산악회	9/21(수)	백무동계곡	010-4655-4370
용호동	금강산악회	9/4(일)	지리산 칠선계곡	010-3865-9051
	여명산악회	9/4(일)	경주 남강 옥산서원	010-3554-4392
	용신산악회	9/11(일)	경남 함천	010-4657-7051
	청산산악회	9/4(일)	괴산 옥녀봉	010-8008-2087
	해물산악회	9/18(일)	경주 남산	010-3580-7558
	21세기산악회	9/11(일)	울주 주암계곡	010-6555-6940
용당동	문화산악회	9/18(일)	충청도 계산	010-2077-5076
	백운산악회	9/25(일)	영동 월류봉	010-2861-3177
	우암산악회	9/4(일)	문경 대마산	010-3557-2847
문현동	문현2동산악회	9/11(일)	한산도 제2길	010-3178-3065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부산남구신문편집실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창의적이고 국제적 인재육성에 힘쏟아야

일류행복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리 남구는 지난 2007년 12월에 정부로부터 ‘교육혁신지구개발벨트’ 시범사업구로 지정돼 30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총괄하게 추진했다. 이때 필자는 남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지역의 인재육성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모델을 창출해 나가자고 했다. 그 대안으로 남구 일대 대학가를 영어 상용화지구(테마거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영어상용화 지구는 정부가 맞춤형 학습시스템(U-learning)을 구축하고, 개인별 학습관리 및 학력진단과 처방, 사이버 자율학습, 원어민 교사 평가 등을 운영, 관리,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 남구는 4개 대학교가 있고, 유엔 평화문화특구로 유엔기념공원과 유

엔평화기념관 등이 있어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해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영어상용화지구화 해서 국제적인 인재육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남구에는 동북아 금융허브인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위치해 있다. 금융센터에 랭귀지 캠프(Language Camp)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센터에서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굳이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 믿는다. 그 밖에도 첨단 기술 분야 특히 해안관련 우수 외국대학원 및 외국 사립대학 과정 유치, 해외 유명대학과의 분야별 국제전문가 양성 공동 프로그램 개발,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지식기반 국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도 계획 실현시켜 운영, 관리,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 남구는 4개 대학교가 있고, 유엔 평화문화특구로 유엔기념공원과 유



단’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인재육성을 위해 하루 빨리 장학재단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단법인인 ‘국제평화기념사협회’가 운영하는 ‘유엔평화기념관’에는 세미나실, 컨벤션홀 등 비교적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런 평생교육을 운영할만한 인적 자원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UN 글로벌 영어 인재원’을 개설할 계획이다. 다만 이 순간에도 국제사회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져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는 앞으로의 10년 또는 그 이상을 결정할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교육, 국제적인 인재교육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박영은 (사)국제평화기념사협회 부이사장·교육학박사

대연5동 일등식육점의 ‘아름다운 상품권’

팔순 어르신.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3년째 육류상품권 지급

못골품목시장 내 일등식육점에는 ‘특별한 상품권’을 취급한다. 대연5동 주민센터가 대연5동 주민가운데 팔순 생일을 맞았거나 셋째 이상 자녀를 낳은 가정에 이 상품권을 지급한다. 일등식육점에서 2만원 상당의 육류로 교환할 수 있다. 상품권의 발행자는 일등식육점을 운영하는 하경용(41·사진) 대표다.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돈을 벌며 주민들에게 뭔가 돌려드리고 싶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상품권은 2014

년부터 발행을 시작해 상반기까지 모두 131장(262만원) 지급됐다. 고령화 덕택에 ‘발권’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 대표는 젊은 시절부터 정육점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9년 못골품목시장에 가게를 열었다. 자신이 발행하고 회수한 상품권은 정육점 배정함에 수박이 쌓여 있다. 홀로 어르신 가문에는 한 톨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상품권을 목혀줬다.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한 달)’을 한참 넘겨

명절 무렵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도 발권자의 특권으로 유통기한 무시하고 언제든지 고기로 교환해 주고 있다. 상품권이 많이 나갈수록 손해 아니냐는 질 문에 “대신 저는 원가로 주잖아요”라는 유쾌한 답변이 돌아왔다.



아름다운 남구 사람들

폭염도 못 말린 ‘우암동의 이웃사랑’

복지사각 모녀 가정 이사 위해 민·관 자원 총동원

낮기는 35도를 웃돌던 광복절 연휴 첫날인 지난 13일 우암동 주택가, 콘크리트도 녹아내릴 폭염 속에서 누군가 한창 이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삿짐을 나르는 인부도 이삿짐 주인도 얼굴에 함박 미소가 가득했다. 이날은 복지사각가정에 놓인 모녀 가정 이사 보금자리로 옮기는 날이었다. 이들 모녀를 위해 이웃과 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 소매를 걷어 부쳤다.

사연은 이렇다. 우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경록 회원이 어린 딸을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는 모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 이들 모녀는 화장실도 없는 단칸 월세방에서 살면서 온수가 되지 않아 겨울에는 커피 포트에 물을 데워 씻어야 했다. 하 씨는 곧바로 우암동 주민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궁리 끝에 관내 복지팀장과 함께 모녀가 살 집을

구했다. 딱한 사정을 전해 집주인은 흔쾌히 월세 없이 저렴한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내줬다. 보증금 500만원의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을 받았다.

이삿짐 운반은 하 씨가 회장으로서 있는 주민 봉사단체 ‘또바기 손길단’과 ‘미리미리 안전지킴이단’ 회원들이 나섰다. 35도가 넘는 날씨에도 회원들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이삿짐을 나르며 도배와 장판도 새로 바꿔주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이 가마를 폭염을 이긴 하루였다.

기사제보받습니다

☎607-4075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16. 8. 22.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처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신진종합건설(주)	용당동	건축 현장소장	1	2016.08.22 ~ 채용시	연봉 4,500만원	647-5600
아이서비스(주)	감만동	교통단속원 및 안전요원	1	2016.08.18 ~ 채용시	연봉 2,000만원	070-4878-1832
태성로지스(주)	감만동	지게차 운전원	1	2016.08.19 ~ 08.30	월급 190만원	632-7942
(주)디에이	용당동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조작원	1	2016.08.17 ~ 채용시	월급 300만원	266-8811
(주)준요지	감만동	빌딩 전기안전 관리원	1	2016.08.18 ~ 채용시	월급 220만원	638-9128
주식회사 오정은	대연동	주방장 및 조리사	4	2016.08.19 ~ 채용시	월급 150만원	624-0920
세린종합건설	문현동	건축 현장소장	1	2016.08.18 ~ 채용시	연봉 4,500만원	644-8200
(주)태은 메디텍	대연동	일반 영업원	1	2016.08.19 ~ 09.02	연봉 2,400만원	633-0185
선형상사	문현동	경리사무원 (제조직)	1	2016.08.18 ~ 채용시	월급 170만원	633-1021
지예스건설(주)	대연동	산업안전 및 위험물관리원	1	2016.08.18 ~ 08.31	월급 250만원	010-6763-4953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웃음 연습

이상희

하루를 못 넘긴다는 의사의 선고에도 묵묵히 오늘을 숨쉬는 장하신 우리 엄마

대학병원에서 겨울이 가고 이차병원에서 봄이 지나고 요양병원에 여름이 내렸다

지금 무슨 꿈을 꾸고 계실까? 아니다 지금은 칠월이니 엄마 내용처럼 쫓쫓한 고추를 얹치마 가득 담고 계실게다 아! 하늘보다 더 짙은 원색의 그리움 어느 날 우리 윤이 좋아 같은 꿈을 꾸다면 멋진 달려가야지 같은 이량에서 만나 고추밭이 떠들썩하게 실컷 얘기 나누자

나 가거든 다섯형제 오순도순 잔치 열아래이 귀에 못이 되어 버린 말

가끔 어느 시간 틈씩 주저앉고 싶은 날 그 약속은 꼭 지켜야해서 오늘도 잔치에 걸맞는 웃음을 연습한다

묵묵히 걸어야 하는 이유다

